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1999년도 인사 5대 목표를 기초로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기둥들

임명은 11월 4일부터, 인수인계는 조정되는 대로 빨리

지난 11월 4일 정기당회에서는 1999년도를 위한 당회인 사안이 결정 통과되었다. 급변 인사를 통해서 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지도 및 위원들, 각 교구의 교구장과 지도, 부지도, 교회학교의 부장과 지도, 부지도, 찬양대 대장과 지휘, 반주자 등이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와 부서들은 새로 임명된 일꾼들을 중심으로 의논이 되는 대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1999년도를 준비할 계획이다. 급변에 임명된 각 일꾼들은 복음의 기초 위에서 교회의 5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온 성도들은 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각 위원회와 부서와 기관들에게 충만하 나 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한편 각 찬양대원, 교사, 교구일꾼 등의 임명은 12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당회
서기 / 노광현 부서서기 / 윤성철

예배위원회
위원장 / 오정현 지도 / 박경환
예배부장 / 김연옥 성례부장 / 박인진, 한송규
안내부장 / 최기홍 영어부장 / 김현채
헌금부장 / 이병욱, 이인상

찬양위원회
위원장 / 이훈 지도 / 조문환
찬양대 대장 지휘 반주 부대장
이종실 조진숙 백금옥 정선진, 정옥남
가브리엘 이영주 장기범 김윤경 이계현, 김은숙
임마누엘 이종식 김철범 윤주현, 전성자
할렐루야 아 멘 조인제 이수철 최현실 조규호, 방소애
아 벨 정종수 강임구 민희정 권복순, 원길자
호산나 염숙현 이숙순 김진영 박승준
실로나 김의철 강임구 임호진 박경명, 김경희
시 온 손 철 이진우 최순복 정선진, 조종선
헨드벨 정정자 손재철 김승훈 김승호
크로아 반도원 구자남 강호원 채은실 노순옥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 남신우 지도 / 정갑신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지도 부감
영아부 황영일 한영준 최경남, 서명숙
유아부 김중구 김경자 김영은, 장영지
유아부 이종식 정연희 김구주, 오화자
유년부 임기재 정영기 강철형, 안금자
사동부 사동부 송원식 이시로, 박영기
초년부 이인상 한숙일 이인경, 김영숙
중등1부 김단용 염현일 이종대 최희환
중등2부 송두길 정갑신 임창식, 이애나
중등3부 손동운 권상현 장충곤, 이우자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 / 최대원 지도 / 김동하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지도 부감
고등부 임무현 조문환 조재민, 조혜순
대학부 정종식 김동하 박종화, 조혜순
하유구
청년1부 김준권 이숙학 이형수, 원길자
김정창

제3교육위원회
위원장 / 이병학 지도 / 김동식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지도 부감
장년2부 손경수 천영준 박철규, 윤수원
장년1부 이병욱 박형용 이동명, 이순자
장년2부 장도용 윤영택 최자용, 박영민
장년3부 엄필성 정현민 황의만, 명정원
소장부 마성락 이종대 최순복 최순복
신인가장부 김환기 조철수 이부성, 김경순
영어교육부 김현채 노봉원 이훈한 김병수

사람부 강은원 김동석 김중선, 최미정
예배대부 박인기 신상수, 강석란
타악부 김경철 최영란 김창규, 임옥순
새가족부 윤영식 정해성 배옥인 최은덕, 박영엽
김영숙

전도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지도 / 김재철
전도부장 / 박영식 직능부장 / 이정주
동아리부장 / 김인관 전도대장 / 이김재
남녀전도부장 / 이하영
위원 / 박인진, 손 철, 김준권, 김단용

선교위원회
위원장 / 김자생 지도 / 이승수 부지도 / 정은희, 박태양
위원 / 윤인현, 오진국, 조인제, 김광남, 이창호, 손 철,
정종식, 김영주

봉사위원회
위원장 / 송기홍 지도 / 김병태
구제부장 / 김경철 정조부장 / 문홍구
차량부장 / 김영길 미화부장 / 권홍철

인사위원회
위원장 / 최희창
위원 / 노광현, 김은호, 김자생, 정하우, 최대원, 이 훈,
김재명, 윤성철

기획위원회
위원장 / 정하우 지도 / 정갑신
위원 / 조진국, 오진국, 박승준, 남신우, 차신득, 손경주,
이승철

교구위원회
위원장 / 김은호 지도 / 김희수
교구 교구장 지도
1 한송규 이흥성 장영자
2 김의철 서광진 임태두
3 송환창 이준경 김경자
4 황영일 최희수 정연희
5 이종식 권상현 현정남
6 김인관 이종대 오인숙
7 김여순 김병태 신동자
8 이창호 차병준 오장숙
9 전종철 장화순 김옥출
10 최정현 김재철 손미희
11 정은식 박경환 최지혜
12 박승준 김필수 김영숙
13 박인진 조철수 배옥인
14 안종옥 진형준 윤인숙
15 이기재 김인식 김복순
16 김영길 정현민 한영준
17 이하영 김동식 송향자
18 김현채 노봉원 김동하
19 정종식 박종화, 김연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 김재명
위원 / 노광현, 송기홍, 이종국, 윤성철, 이정우, 임기재,
김환기
기도원감 / 김종구 동산부장 / 김은순
상조회장 / 김여순

재정위원회
위원장 / 김광남
위원 / 노광현, 김은호, 김자생, 정하우, 이 훈, 최영환,
정정주

건축위원회
위원장 / 우기전
위원 / 최무길, 박영식, 오정현, 이정우, 임무현, 진홍용

감사위원회
위원장 / 차신득
위원 / 이창호, 정은석, 이병욱, 이종실, 전홍철, 안종욱
경상부장사 / 차신득

교육훈련원
원장 / 당희창
부원장 / 송환창 지도 / 김병태
원감 원감 김병태
성경연구원 최기홍 민경재
유 아 원 김중구 반노철
성경연구원 송환창 이숙순
선교연구원 김자생 이송수
전도훈련원 엄필성 김재철
도서장학회 엄필성 정현민 진홍용, 황영일, 정종식

교육연구소
소장 / 당희창
부소장 / 이병학 지도 / 김희수

재지회
회장 / 당희창
서기 / 권홍철
부서기 / 김구형, 안동현, 김영은

집사회
회장 / 이동명 지도 / 김희수
부회장 / 박덕양

권사회
회장 / 김용순 지도 / 이흥성
1지회장 / 서인희 2지회장 / 박윤석
3지회장 / 문명애 4지회장 / 권영애

노회총대
김은호, 노광현, 송기홍

총연회교 유지재단
이사장 / 김경자
이사 / 김성관, 김은호, 정하우, 서동석, 박승준, 마성락,
노광현
감사 / 임필성, 송환창

재단법인 총연동신
이사장 / 김경자
이사 / 김철형,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김재명, 이종국,
김영철
감사 / 김의철, 최정현

사회복지법인 총연복지재단
이사장 / 김경자
상임이사 / 이종국
이사 / 조진국,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손동운, 강은원
감사 / 차신득, 이희영
총연복지재단 / 이종국 사무장 / 하성준

99년도 신임 서리집사·권찰후보자 교육 및 면접

◆ 1차 교육 및 면접
일시: 98년 11월 18일(수) 12:40부터
대상: 여자 서리집사, 권찰 후보자
장소: 갈릴릴교회

◆ 2차 교육 및 면접
일시: 98년 11월 18일(수) 20:10부터
대상: 남자 서리집사 후보자
장소: 베다니교회

강 해



김창인 목사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30:18-26)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도망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 나님은 의로우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인자하시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1.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18절)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당장 멸망시키는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첫째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경솔하여 날뛰던 생활을 버리고 침착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기다려 주십니다. 니느웨 성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 곧 용서하여 주셨습니

둘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 교만한 걸음을 돌이키고 완
전한 걸음을 돌이키고 반역하여 멀리
도망간 것들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방자하 아버지의
제산은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더러운 여자와들 어울려 방축한 죄를
벌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가 돌아
오기를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
닫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돌아오기
를 기다리십니다.

셋째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씩 똑같이 시간을 배정해 주시어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2.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18절)

'일어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바로 살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① 눈물을 닦아 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19절)

몸에 병들이 아파서 우는 것도 눈물이고 사업에 실패하여 빚쟁이들을 피해다니며 어린 것들과 함께 우는 것도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어 울어야 할 일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우는 눈물은 언제든 지 흘려도 좋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울어 주는 기도의 눈물도 언제나 좋으나 죄를 범하고 매 맞으며 우는 눈물은 없어야 하겠습니까.

② 기도 응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19절)

사람은 세상상에 내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쉬지 않고 사는 공중에 허락하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주시니 마시는 것이요, 곡식도 하나같이 미리 내게 하사여 키워 주셨으니 먹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일생 먹을 곡식과 공기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려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것이 있어야 하고 자녀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질병 문제 등 어찌나 문제가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역חות이 있어 생기고 또 생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해결할 힘이 또자랍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 많은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붙여 주시면 생하는 내 것이요 지니우 내 것이요 생활도 넉넉할 것이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까? "...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19절) '들으실 때에'라는 말은 우리들의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곧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③ 지도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20절)

있었습니다. 양에게는 훌륭한 목자가 될 상 열이 있는데 그 이상의 행복이 없고, 그 상에게는 자각 있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 이상의 행복이 없고, 저와 여러 분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줄 아는 것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목적이 눈이 아득히 않은 천령적행한 지도자, 진리를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지도자,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있는 지도자, 희생의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사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지도자, 야망을 겹치지 않고 태대하게 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 하나님께 무사히하며 조실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항상 보내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세살을 떠나면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셨다가 보내어 주셨습니다.

④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복을 주시
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
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
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22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마귀가 유혹하는 미끼를 분별할 줄 알아서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가짜의 할 사업과 교제를 끊을 사람과 거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금은보석이라도 우상이면 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악마의 유혹을 끊어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⑤ 산업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지고 풍성
케 하신 것이며...” (23절)

곡식을 심으면 풍년이 되고, 공장을 시작하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잘 팔리도록 사업과 산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심는 농부라면 풍년 들기를 바라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나 풍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사업이 잘되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⑥ 키우는 가족에게도 복을 약속하였
습니다.

“... 그 날에 너의 가족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23, 24절)

소와 나귀에게 익은 곡식을 먹이는 데, 까불러서 겨는 날려 버리고 알곡만

을 먹이도록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⑦ 승리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에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시냇물
호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
처를 싸대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
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
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
리라” (25, 26절)

원수가 침략해 들어오려고 높은 산 언덕에 망대를 짓고 대포를 쏘며 괴롭히고 원수가 성을 포위하고는 시냇물도 건과 같이 흐르지 못하도록 물길목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가 쌓아 놓은 망대를 일시에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망대가 무너지니 막았던 시냇물도 터졌습니니다. 그래서 원수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들의 계획이 꺾어지

나 한테 무산됐을 포획하였던 우수르
군대 18년 5월 25명 일시에 죽고 남남
대 사람은 부끄러워 미리를 숙일 수밖
에 없는 날에 남남과 백성의 마음어
덜어 있던 군성과 공포의 겹은 거문
다 없어졌었다. 그러니까 달빛이 호
빛같이 됩니다. 슬플 때에 달빛을 보
가 눈물만 나고 원수가 성을 외치하였
제 때에 달빛을 보다가 막히니 어
제 원수를 격파한 비가에 달빛을 보
가 햇빛보다 더 밝게 보입니다. 원수가
대포를 쏘는데는 낮의 햇빛도 컴컴하
게 보이더니 원수가 다 도망간 후에 햇
빛을 보니까 보통 햇빛과 5배나 밝
습니다. 하나니는 그 해를 받아 미
어 군성과 거성이 없어지던 천하의 만
가지가 다 복수처럼 보이지나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도망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선한 일에 정성을 쏟
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라시
입니다. 그리고 눈물부터 닦아 주시고, 기
도에 응답을 주시며, 좋은 지도자를 주
시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산업에 복을 주시고, 가족에게도
복을 주시며,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이
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
기를 원합니다. 



김성관 목사

예수님의 방문 (누가복음 24: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찾아오신 예수님과 평강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자기들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엠마살명으로 달려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모인 무리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통해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한 자를 야오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자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중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문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치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주실 것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게셨습니다. 모인 무리의 대화의 중심은 예수님이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요 20:19).

내 안에 있어야 할 평강

이 장면은 매우 강하고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지각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 생활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를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없던 제자들의 모임

먼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모인 무리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열매에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

한 죄와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해 죄의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었을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불의한 죄인들의 결박을 제지할 용기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냉담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맛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는커녕 얼마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슬픔과 낙망을 가져왔고 그것은 또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셨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눅 24:11). 주님과 함께 3년 반이나 동행했

라지도 평강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좌절 속에도 믿음의 불씨가

잠시 본문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모임 안에는 사실 작은 믿음이 이미 싹트고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나누기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 여인들은 무덤이 빈 것과 천사가 그들에게 주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 오셨습니까. 모인 무리가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참된 증인입니까?

주님의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던 제자들은 제자도를 상실했으며 나아가서는 주님의 적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 없는 양장이 방황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주님을 십자가, 곧 죄인의 무덤을 결코 못박혀 죽은 자 안에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평강이 없을 때

우리 총회교회에도 이 제자들처럼 여러 사람이 오이는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돕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에 참석하는 성도들 중에는 모임의 가치를 전혀 못느끼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왔다가 하는 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좌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올 때나 끝나고 돌아갈 때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함께 계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낙심과 슬픔과 분노는 사

했습니다. 그토록 파란던 주님이 돌아가신 후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몰라 열려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위험한 모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임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준비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 울부짖음과 다름,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요”라고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강을 전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죄인된 제자들이 이제에 하나님과 함께 안에 거한다는 선포이었습니다. 이는 절대 전능의 말씀이었

며 그들의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씻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그들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중심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노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평강을 주시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완전한 변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모인 무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평강은 제자들의 모든 의심을 풀어 주었습니다. 완강하게 믿지 않았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며,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시고 직접 육식 드시는 것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 가장 진실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기억에 새겨 놓으셨습니다(눅 24:44). 모든 성경이 주님 자신에 관해 쓰여진 사실임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45절),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48절).

모일 때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임 안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참된 증인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까? 우리는 모임을 갖기 전에 먼저 주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는 좌절과 혼란과 고통 뿐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총회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

국외외국인선교부

예수님이 좋은 아지트와 말리

구 영 자(집사, 국내외국인선교부 교사)

“이 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엡 5:31, 32)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온 아지트와 말리. 이들은 멀리 스리랑카에서 왔다. 눈물방울같이 생긴 작은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리랑카에서 온 지 3년이 되었다. 2년 전 1월 2일 충원기도원으로 전화를 걸러 왔다가 우리를 처음 만난 친구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지금의 외국인선교부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한다. 어느 날 아지트는 나에게 “예수님이, 한국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고, 부모님들도 허락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오전 11시 둘은 갈릴릴 호텔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가 되었다. 결혼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외로운 섬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교적번호가 없으면 결혼식을 할 수가 없다는 사무구 자매님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일 처음 등록



결혼식 다음날 참여한 성찬식에서 맛본 진정한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처럼 선교 위에 쓰임받는 가정되길...

한 친구들이라 유익하게 교적번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지트와 말리 이후로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교적번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모든 준비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손길을 보내 주셨다. 웨딩드레스, 웨딩플라워, 웨딩케이크, 웨딩사진, 신부화장 등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웠다.

결혼식(금요일)을 끝낸 후 첫 주일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작년에 세례 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므로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축복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지난 2년 동안 이들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일을 마친 근로자들의 숙소로 찾아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딸들을 가르쳤던 그 시간 시간들이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흔들었다.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지쳤던 육신이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아지트와 말리를 보는 순간 눈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우리를 감싸 주었다.

이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스리랑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7개 나라 외국인 친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들 중에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선교사가 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초등부 학교 앞 전도

기쁨 넘치는 눈빛으로 복음에 귀기울인 아이들 잊을 수 없어

뿌린 씨앗 열매로 거둬들일 그날을 기대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주 명 숙(교사, 4과 4반, 역삼초등학교 전도팀)

초청 전도 잔치를 계획하고 팀별로 학교 전도를 나가기로 되었다. “주 집사님, 토요일날 나올 수 있지요?” 우리과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학교 전도나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디다” 하고 드디어 토요일 오후 한 번만 나가면 되겠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처음 마음과는 달리 그만둘 수가 없었다. 전도 나가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이 좋은 분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아이들과도 제법 친숙해지고 아이들이 와서 아는 책을 해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직접 아이들을 교문 앞까지 데리고 나와서 보내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들 곁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제 믿으세요” “너희들 교회 나가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저만큼 도망가 버리고 만다. “우리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전도와 반호를 알리 주어서 기쁘게 돌아와 전화를 해 보면 절반이거나 반지 않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허탈했다. 그래도 주일날 만나기로 한 시간에 교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가 보았지만 결국 초청 전도 잔치에는 한 생명도 참석을 시키지 못했다. 처음 하는 전도였기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서툰 탓지만 일단 겨울방학 때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기로 했다. 열심히 써들 뿌리고 가꾸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겠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가기 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어린 심령에
계속 타오를 전도의 불길

성 향 록(교사, 6과 5반, 학동초등학교 전도팀)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학동초등학교 3, 4학년들의 수업이 끝난 시간에 학교 앞에서 초등부 선생님들이 모이는 시간이다. 충원교회 피켓을 들고 예수 사랑 띠를 가슴에 두르고 초청 전도지를 손에 들고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밝혀야만 했다. 어린이들에게 먼저 접근하기가 어려워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새 친구를 소개받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을 전하였다.

첫 주에는 전도하는 것이 서먹하였지만 매주 나갈수록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어린이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기억이 남아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 본다. 적잖 생활로 바쁜 가운데서 틈을 내 전도에 동참해 주신 선생님, 또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선생님, 또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같이 힘을 써 주셨던 선생님, 또 나오지 못했지만 뒤에서 후원해 주신 선생님,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어 주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

짧은 전도기간이라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적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기는 어린이들 마음 속에 계속 남아 불이 붙어지고 있을 것이다.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내 할 일을 생각한다

김 영 심(교사, 2과1반, 논현초등학교 전도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몇 교사들이 논현초등학교 후문에서 있다. 밝은 눈망울로 다가오는 사랑스런 아이들, 그 아이들은 대부분이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을 전할 때는 기쁨이 눈에 맺혔다. 그러나 어두운 눈의 아이들은 무관심한 모습이였다. 지금 생각하니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짧은 시간이었으나 행복일만이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눈빛을 떠올리게 되리라. 이런 경험을 통해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했다. 내가 주님을 알도록 돕는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역할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이 넘쳐흘러 친구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그런 일꾼이 되도록 지금껏 작은 일부터 충성하며 도와 주어야 함을 다짐한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 사이로 내 영혼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이 눈부신다.



NMC 제7회 찬양드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혜

취재 · 정리 / 황 정 연(대학부 1학년)

“2” 런극 누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10월 31일 'PRAISE FOR HIM'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NMC(NEW MINDS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새 마음들. 사실 이 이름은 국립의료원의 영문 이니셜이기도 합니다)의 제7회 찬양드림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고자 맘 흘린 대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부 마지막 순서는 무언극 형식의 율동으로 이어졌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의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의 주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된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흘러 넘쳐서
모인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영향 돌림이었습니다. 먼저 찬양드림은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국립의료원에서 전도사역을 감당하는 NMC의 사역과 대원들의 생각, 그리고 찬양전도 간증 등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번 찬양전도는 부산과 마산지역에 있는 병원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어내려온 병원 전도의 열정은 어느덧 25년의 세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율동'을 통한 경배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몸짓 하나하나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산 제사자로 드러났습니다. 대원 한 명 한 명의 눈

고 구원, 믿음, 확신, 기쁨,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드릴 대원들의 찬양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대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흘러 넘쳐서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NMC의 말뜻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가득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NMC 찬양드림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본의 주일은 새벽부터 시작된다

정 선 현(전사, 고등부 교사)



10월 말부터 비가 몇 차례 내린 후 온 감작스에 날씨가 차가워졌다. 하지만 주일 새벽부터 일마누엘들은 유난히 뜨겁다. 올 초에 있었던 공사를 통해서 완벽한 찬양대 연습실로 탈바꿈한 본당 지하의 일마누엘들. 이곳이 바로 마음을 사모하고 찬양에 묻히고 싶어 오며는 고등부 예본대원들이 뜨거운 기도 모이는 장소다.

현재 126명의 찬양대원과 23명의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고등부찬양대는 1993년 '예배의 본이 되자'는 의미에서 예본찬양대라 이름이 붙여졌다. 주일 새벽, 원직이와 하나는 찬양에서, 빛나는 감성에서, 소원이든 은평구 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온다. 모든 대원들이 다 모이면 뜨거운 찬양연습이 시작된다.

작년 9월부터는 5부예배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이들이 쏟아내는 수고의 땀은 눈물겨울 정도다. 5부예배가 드러난 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모여 다음 주일 찬양연습에 들어간다. 때로는 안타깝기조차 하다. 그래서 순서지 목사님과 장로님께서서는 이들을 자주 찾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신다. 위임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지도 이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 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열심과 충성된 모습에서 그들의 가슴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끝내 빚어 주시옵소서!"

총현교회의 총현교회다움에 관하여

강 석 진(대학부 7학년)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그렇게 시작한 열매 13년이 지금 대학부 졸업생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엇이 나를 총현교회에 붙잡아 둔것일까? 물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총현교회의 총현교회다움'이라 하겠다.

1. 믿음 중심의 교회

총현교회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보수'일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 중심'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물론 때로는 너무 발전이 더디는 모습이 될 때도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교회를 유지시키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말씀이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봉투된 속에서 힘들 때마다 묵묵한 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20년내내 내가 본 교회 모습이다.

2. 민족을 생각하는 교회

어릴 적에 종종 시골산악이 불타던 불타산으로 소풍을 가던 기억을 해본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북한선교관'이 있던 곳이다. 당시에 통일이 되자 북한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군대가 되겠다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신하다. 원로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평양과 신의주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생각난다. 반공이 국사이던 시절에도 민족을 품고 통일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



진정한 개혁은 총현교회다움의 회복으로부터

셨던 원로목사님의 모습이 '총현교회의 총현교회다움'이 아닐까? 통일을 위한, 민족을 위한 모습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3. 5대 목표를 지향하는 교회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이렇게 다섯가지를 위해 총현교회는 예전부터 노력해왔다. 그런데 종종 그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을 받는다. 김성관 목사님의 노력으로 '세계 선교'는 올해 어느정도 됐겠지만 다른 것은 총현교회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신령한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이

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5부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빨리 들어오라고 외치는 모습은 참 보기 민망하다. 천국일꾼 양성 또한 좀 더 다각적으로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한 분이 교회에 농구대를 기증하셨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운동을 통한 경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런 자발적인 성감을 통한 천국일꾼 양성이 아름답다.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종종 평일에 교회를 찾으면 굳게 닫혀 있는 본당문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갖는다. 최근 역삼역 주위로 큰 건

물이 4개가 지어지고 있다. 이 건물에 회사원들이 다 모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이들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들이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를 찾을 때 달란트 있는 본당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또 평일에 길에 주차된 차를 보고 텅빈 교회 주차장을 보면 '총현교회의 총현교회다움'의 대표적인 목표인 5대 목표의 '이웃 사랑'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4. 겸손한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치고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교인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총현교인이 이 물질의 정도도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빈부의 차가 많이 나면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내 각종 유허회 등에는 또다시. 안락으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총현교회의 개혁은 어떤 일을 꼭게 만드는 것보다 바로 이 '총현교회의 총현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적이란 생각을 해본다. 형식이 아닌 실제로 살아나는 '총현교회다움'의 모습 말이다.

나의 주 나의 나남

중국에서 온 편지

지난 8월 중국 조사를 방문했던 중국요원, 이들은 대학 중심의 도시인 쑤저이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방문할 복음을 전했다.

기지에서 만났던 형동이 자매, 거리와 캠퍼스에서 만난 수많은 대학생 엘리트들이 머리 숙을 사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텐데.

준비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루신 세계 전도의 위업이 오늘 중국의 이 젊은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던 일인가.

이들이 변화되던 한다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참 소망의 눈빛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바로 그들 중 한 지체부터 편지가 왔다.

장재가 축광되는 장광형이다. 그의 이름 첫 자는 LY,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해 준 믿음의 아버지 이강재 장로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장로가 답장했고, 감성관 위임목사도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편지의 오고갈 속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맺을 것인가가 기대된다.

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셨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집에 도착 하셔서 거라 생각합니다. 여형이 평안하셨는지요?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곳에는 좋은 3일간 비가 내렸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처럼 이별을 원치 않아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그 3일간의 만사를 되돌아보면 마치 하루의 짧은 아름다운 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쓴 편지에 기이하게 '꿈 같다'라고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형 그 많은 사람 중에 서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형 그처럼 한 번 보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 이 '꿈 같다'라는 글자를 적어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 저에게, 또 모두에게 그처럼 친절하셨기에 고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독특한 그 어투를,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 곧 다시 편지를 쓰겠습니다. 주 현 자매와 형조 오빠에게도 안부 전해 주세요. 그들에게 제가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바란다고 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98. 8. 16. 멀리 있는 딸 LY 올림

안녕하세요 장로님!

모든 일에 평안하십니까?

장로님이 무척 보고 싶어요. 장로님께서도 가끔 저를 생각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명령에는 율법을 먹으면서 장로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서 다시 "헬로우" 하며 인사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학기에 때문 바빠졌습니다. 내년 봄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동시에 책벌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도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안그러서도 됩니다. 저는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에 학년 전체에서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멋지죠?

이제 가을이네요. 서울의 가을은 어떨지 상상이 안가네요. 그러나 이곳은 최근에 매우 살기 좋고 따뜻하고 밝은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먼 곳의 산도 뚜렷하게 보인답니다. 지난 여름 이곳에 개설 때 넓게 공사가 있던 길, 기억나시나요? 그 길이 이제는 공사가 끝나서 이 도시에 가장 넓고 깨끗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지난 여름 때와 함께 걸었던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다음에 장로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다시 이 길을 걷게 된다면 지난 번 보다 훨씬 좋은 느낌을 갖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더는 낡지는 변하지 않겠지만요.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형조 오빠와 주현 자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평안하세요.

LY 올림

내 믿음의 딸 LY에게

단장이 늦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무척 보고 싶었다. 너네 네 부모님 모두 다 잘 지내리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 번에 보낸 편지랑 사진은 받아보았는지 모르겠다. 지난 여름 네가 우리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설계한 그 성실한 안내 봉사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구나. 네가 학교에서 일등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네가 무척 보고 싶다. 가족 사진을 좀 보내주려구나.

우리가 비록 먼 거리에 떨어져서 지내고 있지만, 나는 어떤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네 건강을 본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리라. 답장도 꼭 해주고, 안녕.

1998. 10. 25 이강재 씨

LY 자매님에게

LY 자매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총현장로교회의 위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감성관입니다. 자매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강재 장로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소개받고 난 후 무척 감사했습니다. 자매님이 지난 10월 18일에 보낸 편지 읽어봤습니다.

저는 자매님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훌륭한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고는 가지요,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가치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매님 모두가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의 기우는 무척 안온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는 벌써 가을이 와서 하늘은 높고 푸르네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매님의 도시와 서울의 아름다운 날씨처럼 저와 자매님 사이에도 멋진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

1998. 10. 26 김성관 목사

◀ 지난 여름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그 지체들과 함께



이웃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겨내는 마음의 장애

금 호 순(순산, 4교구)

친척 중에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목사가 있다. 얼마 전 잔 남 기사가 있어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의 즐거움은 먹는 것이란다. 입의 즐거움 때문에 실컷 먹고는 운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다니고 있어도 구부러져 졸며 쉬는 것이란다. 항상 잠과 있으면 잠은 더 잘 오는 습관 때문인데, 많이 잔지 못하니 하체는 무실해지고 배는 집 앞 동산만큼 불러오고, 다리는 황색 다리처럼 가늘고 힘이 없어 약간 고동소라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것을 보다 못해 사모님은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린 후 식료품을 공동 구매하여 조금씩 나눠 주고 점심식사를 위해 가까운 남산한옥으로 데려가 함께 차를 타고 장사나 길게 하던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린아이가

소풍갈 날 기다리던 심정처럼 이 날을 기다릴 때마다 소중히 간직하는 행복된 일로 남게 된다. 한 사람의 희생을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람과 삶에 의욕을 심어 주는 것을 보며 참으로 작은 것에 소중히 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앉던 집사님이 보이지 않았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렸는데...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머리가 숙여졌다. 신체의 일부가 잃은 자들에게 하나하나에서는 다른 것으로 채워 주셔서 정리가 발달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 예배당에 와서도 고집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으며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를 찾으며 '왜 몸이 안종으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하며 꼭 보는 것처럼 서로 얘기하기에, 처음에는 앞이 보이면서 일부러 장애가 있는 것을 숨기려 했다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이들은 상대방의 말의 색깔과 고저를 듣고도 현재의 감정과 상대방까지 앞뒤 따지고 모든 소리를 파악하며 서

위쳐서 가장 형편이 많이 힘들어 교회와 공동체 마련하기조차 힘들어졌다고 한다. IMF 이후 우리 사회가 너무나 할 것 없이 너무 팍팍한 살림에 하나 하나 추스려 나가기도 너무 힘이 든다. 형제는 줄어들고 이웃들의 소리는 명멸이 부도 도산이요 감환이요 설적이라며 절망적인 밑바탕에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웃의 소리를 외면 말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를 가진 소경들도 형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데, 멀쩡한 눈을 가진 성한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한 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채 외면해 버리니 육신의 장애보다 현대사회의 무관심이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장애인인가. 나부터 먼저 실천하여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지체들 소식

영어부

배가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어부 가족 모두가 기도하며 목표를 세운 200명이 넘었다. 지난 98년 첫날 첫주에 100명도 안되었던 적은 인원인 이제 200명이 넘었다. 아기도 많이 자라서 영어부실이 작게 느껴진다. 얼마 후에 있던 아기들이 애쁘고 귀엽게 걸어나다며 뛰어나갈 정도로 성장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가운데 가족들이 늘어나고 아기들이 쑥쑥 자라고 지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며 영어 부아빠들 동록하지 않은 아기와 엄마, 아빠가 영어 교육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송혜경 통신원)

유지부

별 하나에 예수님 사랑 신고

제비 쫓아다니는 날씨 탓에 유지부실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주일! '사랑을 신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린 친구들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록색도 인하여 마스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찬양과 친구들은 벌써 추수감사절 준비와 성탄절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부쩍부쩍 자라나는 우리 유지부 친구들,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초등부

다함께 추수 찬송 부르자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창세들이 짙어질, 줄에 매달린 강풍들이 뚝뚝 소리를 내며 허수아비들이 휘이휘이 창세들을 쫓는 가을에 초등부에서는 11월 15일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온 한해 동안 알맞은 햇빛과 자연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맞은 때에 추수할 수 있도록 해 배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항상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인형극을 준비해서 어린 이들에게 우리가 꼭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께요

바람 끝이 제비 차가운 11월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충헌 가족들의 기도로 마음 졸이며 준비했던 시와 찬양의 밤 행사가 무척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감사드리며 저희 중등2부에서는 11월 15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여름수련회 때 다녔었던 나그네집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수용시설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러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주께 있는 것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큼 반듯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크시고 강하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형제들에게 필요한 헌 옷과 헌 이불, 중생세제, 비누, 치솔, 치약, 화장지 등을 수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어린 도움을 기다립니다. (나성애 통신원)

고동부

1학년 총동원 전도주일

지난 10월 25일에 '1학년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주제 아래 참 기쁜 시간을 가졌어요. 귀여운 1학년 후배들이 바쁜 학교생활 중에에도 전도를 하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지요. 상문, 은광, 영파, 대일 등 여러 학교에서 새 친구들이 왔는데요, 전도한 친구나 새 친구나 모두들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2, 3학년들 역시 전도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용기를 갖고 나오게 된 새 친구들, 그들이 앞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자구요. (김범현 통신원)

정년1부

11월 한 달 재적수 완전 출석 운동

11월 한 달 동안 재적수 완전 출석 캠페인을 실시하여 총동원 전도와 출석에 한몫 하기로 했다. 교사 중심으로 각자 맡은 재적수 학생들이 100% 출석하도록 기도하며, 심방(전화 및 방문)하는 것이 생각는 매수일 출석 점수제가 채택되어 최고 점수를 획득한 반 학생들과 담임 교사에게 완전출석상을 시상기로

했다. 또 이번 캠페인 기간 중인 22일에는 소망부 지도자인 이종대 목사님을 초청하여 '부흥'이라는 제목의 특강과 29일에는 지도 박형용 목사님의 히브리서 특강도 있다. 대학부 NMC 전도찬양단과 교회 찬양대 독창부를 초청하여 찬양의 시간을 갖고 장년부 부부중앙단의 믿음의 찬양 순서도 가진다.

15교구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 방이 있습니까

교구마다에 오면 여러 가지 교구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중에 장기환자 명단 위에 굵은 글씨로 '기억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씨가 눈에 띈다. 장기환자 명단을 통해 줄곧 4명의 성도가 개종했는데 얼마 전 한 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지금은 3명의 성도만이 투병 중입니다. 총대방 성도님은 광산직업병원 진료중으로, 이한길 성도님은 메가 3기로, 신명진 성도님은 메가이 간, 바, 장 등으로 전방이 되어 투병 중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전해 듣고 교구 식구가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였다. 목사님은 메시자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 방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시고 남의 고통에 대해 부심하고 무정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셨다. (한숙정 통신원)

탐방 / 남성도구역

남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의 장

— 15교구 5구역 남성도구역예배를 중심으로 —

한 명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최소한 5명과 친근히 사귀어 교제하며 교회의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신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 성도의 성장은 교회 성장과 이어지고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이 성도의 성장의 뿌리가 바로 구역이다.

이제까지 구역활동은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올해 초에 남성도 구역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벌써 10개월째로 접어 들었다. 남성도 구역 활성화는 남성도들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그들의 타인인 지체들 성장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는 지극히 바람직한 일임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출발한 남성도 구역예배 현황을 탐방해 보았다.

10월 27일 오후 8시에 15교구 남성 5구역(영천 4, 5, 6, 7구역) 예배 취재를 위해 여러 집사님들을 찾았다. 저녁시간임에도 예배 인도를 위해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계신던 허오 집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해 하면서도 반갑게 맞아 주셨다. 남성도들만 모이리만 했다니 8시가 가까워오니 반쪽이 아닌 하나(부부)로 되어 특히 무거운(?) 성경가방을 남편들



내 필요보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대대로 기도하기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하고 많은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들고 오시는 모습이 정겹고 아름다웠다.

구역예배가 시작되었다. 10월의 공과 주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다. 찬송과 기도 후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구역원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다. 문제제기가 돌아가시는 토론회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했다. 구역식구들 모두가 정담으로 재치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품품하게 보살피는 자상스러움이 돋보이는 인도 방법이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나의 점감' 부분을 인도함에 있어서 구역원들이 예화를 들도록 함으로써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고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감이 즐거워하고 감사했다. 그러나 5번째 점감 질문 '당신은 기도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에서는 즉석 답을 만

들어 '예쁘고 있습니다'라고 답해서 모두 공감이 가는지 웃고 말았다. 이어 구역장 허오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에 얻은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기도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권면하였다. '적용' 부분에서 다음 구역예배 때까지 실천사항으로 1. 내 필요보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대대로 기도하기 2.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하고 많은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통성으로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을 열어 교제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웃사랑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도 회복되고 같은 동네이므로 삶의 절서나 모습이 비슷하여 더욱 주 안에서 친근한 가정 단위 교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남성도구역모임에는 다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된다.

그렇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다. 직업, 학벌, 빈부의 차별이 없는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델이 다시 한번 충헌교회 구역예배에서 이뤄질 것을 믿는다. (글, 사진/한숙정 기자)

교 회 소 식

● 알림

1. 추수감사주일 안내 / 15일(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15일(다음 주일) 1, II, III, IV, V 부 예배시 기도과 청성으로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기 바랍니다.
2. 주일오후기도회 / 15일(다음 주일) 정오 안배 / 유아세례식 있는 관계로 15일(다음 주일)만 사랑방실에서 있습니다.

● 모임

1. 장로 화해세례기도회 / 10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시 필요세례기도회 및 성경공부 / 9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릴
4. 불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5.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2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6. 경찰전도회 총회 / 오늘 15:00, 갈릴릴
7. 권사회 제2회 월례회 / 11월(수) 1부 예배 후, 사랑방실

● 남나전도회

1. 바 6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2. 바 6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1호
3. 베드로 2 / 14(토) 18:30, 노아식당
4. 한 나 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7호
5. 한 나 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6. 한 나 5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7. 한 나 8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8. 한 나 9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9. 한 나10 / 오늘 교구모임 후, 본당 이층 수납개 열
10. 한 나1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11. 한 나12 / 오늘 15:00, 교육관 212호
12. 한 나14 / 오늘 교구모임 후, 만나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688	서해정	1	부다아	1704	김영만	15	청년2부	1721	김종준	14	바울		김희준(9)	
1689	김준호	1	중동부	1705	조경만	15	청년2부	1722	장진규	19	청년2부			
1690	전정수	3	청년2부	1706	장기철	16	청년2부	이강진(15)	1723	이진형	19	청년2부		이우주(10)
1691	김진우	3	청년2부	1707	이창진	16	청년2부	이강진(15)	1724	이보영	6	청년1부		김명준(9)
1692	김희재	4	에스디	1708	박성민	19	고동부	1725	김보미	19	중동부		박소현(14)	
1693	강정환	4	청년2부	1709	이아람	19	중동부	유영욱(4)	1726	김희수	1	중동부		
1694	김정민	5	부다아	1711	박창민	19	대학부		1727	정진관	2	청년2부		윤여진(2)
1695	이명진	19	에바다부	1712	정병민	19	대학부	김희철(3)	1728	최종준	1	바울		
1696	김정민	5	베드로	1713	이진세	19	대학부	김희철(3)	1729	박정희	3	마리아		
1697	윤정희	5	청년2부	1714	이현아	19	청년1부	1730	최영환	4	중동부			
1698	김종세	6	베드로	1715	이정숙	19	청년부	1731	신승욱	4	에바다			
1699	정병철	8	청년2부	1716	이정숙	19	청년부	조종범(6)	1732	윤민형	11	베드로		
1700	조희필	8	청년2부	김희철(8)	1717	이숙희	19	청년1부	조종범(6)	1733	이준호	11	요한	
1701	송재범	10	청년2부	최원희(5)	1718	전성수	2	청년2부	1734	김유림	16	영아부		
1702	최희정	10	청년2부	김희철(8)	1719	김영하	2	청년2부	1735	박종선	1	부다아		
1703	박정숙	15	청년1부	1720	김영하	4	청년2부	김이수(4)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식 한 주 연기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관게로

유아세례식은 예정대로 다음주일에

다음 주일(15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4차 학습세례식이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과 중동부에서 22일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아세례식도 예정대로 15일 주일 갈릴릴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한 주 더 여유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셔서 더욱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세례식 당일에는 15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준비된 물과 마유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날짜	시간	학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1월 0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유아세례식 11월 15일 오후 3시 갈릴릴				학습세례식 11월 22일 찬양예배시 본당			

교역자 인사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준형 목사를 본교회 부목사로 청빙하였는데 바 이 목사는 교구 인사인제가 끝나는 대로 3교구 지도를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영아교육부 사역과 주간출현 영문판 편집 및 통역 등의 임무를 위해 김병수 전도사를 교육전도사로 청빙했다. 김

전도사는 대구신학대학(현 대신대학)을 졸업한 후 호주시드니로 유학하여 성경대학 및 장로교신학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새로 청빙된 교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여야 하겠다.

11월 15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브니엘여성찬단

〈찬양곡〉

- 주가 축복하리라
- 지 되는 본향길
- 새 생장 시작해

◆ 3부예배

청년1부 찬양단

〈찬양곡〉

- 만유의 하나님
- 빈 들의 마른 풀같이(찬 172장)
- 시편 23편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40장)

◆ 4부예배

청년1부 찬양단

〈찬양곡〉

- 만유의 하나님
- 빈 들의 마른 풀같이(찬 172장)
- 시편 23편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40장)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김동하 목사

충현중보의 창

① 김장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동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더욱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1999년도를 위한 인사 개편을 통해 충현교회 5대 목회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새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소서.

③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겨울단기선교회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따가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 참여케 하시고,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열려서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생활 중에서도 피로와 슬픔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 중에 간절히 하시기 치료하여 주소서.

⑦ 1999년도 신임 서리집사, 권할 후보자들이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여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⑧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동한 감사를 회백하게 하소서

⑨ 학습 및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준형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서 김진우 김현철 김재철 이윤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대 김진식 김선형 서광진 이송하 정해성 박노준 이준형
- 협동목사 윤정만 박영호 노봉원
- 선교사 이준호 안석필 김영대
- 원로전도사 이태원
- 어전도사 최승복 정현희 현정환 정복인 장영지 이태주 김창지 배옥진 최치혜 손희희 송창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장대
- 교구전도사 박진기 연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명기 송원식 김장준 조재민 최진수 허용구 이우찬 김병수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대영
- 원전도전도사 유병서 김형선 이기성 김철형 고은빈 허요셉